# '세계정신 탐험한 위대한 한국인'

## 2월의 문화인물 혜초스님

## 구법여행의 완성자…중국밀교 법맥 계승
## 1908년 중국 돈황서 '왕오천축국전' 발견
## 27일 학술세미나-국악교성곡 음악제 열려

험난한 여정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향해 구법(求法)의 길을 떠났던 혜초(慧超·704~787)스님.

'불교의 본고장' 인도를 두루 돌아보며 기록한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을 남김으로써 그 치열했던 구법정신을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 혜초스님이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2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돼 1300여 년만에 우리 곁에 왔다.

사실 〈왕오천축국전〉이 발견되고 혜초스님의 이름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지는 불과 한 세기에 지나지 않는다. 1908년 중국 돈황 천불동(千佛洞)에서 〈왕오천축국전〉이 발견된 후 비로소 세상에 그 존재를 나타낸 혜초스님은 특히 우리나라 기록 속에는 그 이름이 단 한번도 나온 일이 없을 만큼 관련 기록이 없다. 그런 점에서 문화관광부가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한 역사적 인물을 지정하여 기념하는 '이달의 문화인물'로 혜초스님이 선정된 것은 뜻깊다. 〈왕오천축국전〉의 저자로만 알려져 있는 혜초스님은 어떤 인물인가 알아보자.

▲생애

신라 성덕왕 3년(704)에 태어난 혜초스님은 어린 시절에 출가하여 719년경 중국 유학에 올라 당나라 광주(廣州)에 도착했다. 그 곳에서 인도 승려 금강지(金剛智·671~741)를 만나 제자가 되었다. 금강지는 제자 불공(不空·705~774)과 함께 중국 밀교의 초조(初祖)가 된 인물로, 당시 장안(長安) 등지에서 밀교를 가르쳤는데 그의 문하에 들어간 것이다.

혜초스님이 인도구법을 떠난 것은 대략 722년경으로, 〈왕오천축국전〉의 내용으로 보아 해로(海路)를 통해 갔다가 육로(陸路)로 돌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만 4년동안 인도를 여행하고, 중앙아시아 일대까지 약 8년등안 답사하였다. 그 후 장안으로 다시 돌아와 733년, 천복사(薦福寺)에서 도량을 열고 스승 금강지와 함께 밀교경전 〈천비천발대교왕경(千臂千鉢大敎王經)〉을 연구하였다. 금강지가 죽은 후 773년 가을 대흥선사(大興善寺)에서 다시 역경을 시작했는데 이때 혜초스님은 불공으로부터 6대제자 가운데 제2인자로 유촉(遺囑)을 받아 금강지→불공→혜초로 이어지는 중국밀교의 법맥을 갖게된다. 혜초스님은 노년을 오대산 건원보리사(乾元普提寺)에서 보냈는데 이후 행적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고 787년에 입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혜초의 불교사적 위치

혜초스님은 구법여행의 완성자였을뿐 아니라 고행으로 대변되는 신라 구법승들의 전통을 계승한 인물로, 무엇보다도 신라불교 사상 혜초스님의 위치는 그 밀교연구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밀교승려들의 법통에서 보면 금강지·불공과 관련을 맺은 신라인으로 혜통(惠通·생물연대 미상)을 들고 있다. 그러나 혜통은 〈삼국유사〉에 그 이름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혜초와는 전혀 무관한 인물이다.

그렇다면 혜초의 밀교와 신라의 신인종(神印宗)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신라 신인종은 밀교의 주술을 국태민안(國泰民安)·양재(讓災)·호국 등 실제적이고 세속적인 면을 신비성으로 미화하고 있다. 그러나 혜초스님의 경우는 그런 현실적 기복성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스승 금강지와 더불어 밀교의 경전을 연구하고 밀교의 정통성, 순수성 등에 관심을 보이며 본고장의 밀교를 통해 불교대중화를 시도한 인물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관련된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아 밀교사상가로서의 면모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왕오천축국전

〈왕오천축국전〉은 1908년 3월, 중국 돈황 천불동에서 프랑스 탐험가 펠리오(Pelliot)에 의해 발견됐다. 두루마리 형태로 발견된 〈왕오천축국전〉은 제목·저자명 등이 전혀 없었으며 총 2백30줄로, 한 줄은 약 30자 내외 총 6천여 글자에 불과했다. 앞의 일부분과 뒷편의 약간 장이 결손 상태인 이 책은 원본을 줄여 쓴 약본(略本)이기 때문에 그 서술이 간략하다.

하지만 몇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먼저 8세기 인도의 정치·문화·경제·풍습 등을 알려주는 유일한 기록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인도기행이 해로와 육로가 같이 언급되고 있으며, 불교의 대승이나 소승이 각각 어느 정도 행하여지고 있는지, 또 음식·의상·산물·기후 등을 각 지방마다 기록하고 있어 사회상태에 대한 사료적 가치가 돋보인다.

〈왕오천축국전〉의 첫머리는 오천축(五天竺) 가운데 중천축(中天竺)을 시발로 하여 남천축→서천축→북천축 등의 순으로 기술되어 있다. '오천축'은 인도대륙을 동서남북의 사방으로 나누고 거기에 가운데를 하나 더 첨가해서 '다섯'으로 표기한 것. 북천축 다음은 중국의 연변에 있는 루챠, 즉 안서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귀로의 여행기가 분명하다. 따라서 결손부분은 동천축(東天竺)이고, 동천축으로 들어갔다면 혜초스님이 중국 광주를 출발하여 인도로 들어간 경로는 해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1908년 중국 돈황 천불동에서 발견된 〈왕오천축국전〉 현재 프랑스 국립 중앙도서관에 소장돼 있다.

〈왕오천축국전〉은 1909년 혜초의 저술로 밝혀진 이래 1928년 독일학자 월터 폭스(Walter Fuchsw)에 의해 최초의 독일어 번역이 나왔다. 1943년에는 최남선(崔南善)이 원문과 해제를 붙임으로써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연구논문

혜초스님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인물에 대한 조명과 〈왕오천축국전〉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룬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으로는 △혜초, 천축에의 발길(고병익·신구문화사, 1965) △왕오천축국전의 몇가지 문제(박기석·서울대, 1979) △혜초의 인도왕로에 대한 고찰(고병익·동국대 80주년 기념논총, 1987) △신라승 혜초에 대하여(김영태·가산학보3, 1994) 등 30여편과 일본에서 나온 논문 △혜초 〈왕오천축국전〉에 대해(高楠順次郎·동경 불서간행회, 1915) 등 4편이 있다. 단행본으로는 〈왕오천축국전 : 혜초기행문〉(양한승·통문관, 1961), 〈왕오천축국전 해제〉(고병익·문화공보부, 1987), 〈혜초왕오천축국전연구〉(桑山正進·교토대학, 1992) 등 5편이 나와있다.

▲기념행사

'2월의 문화인물' 혜초스님을 기념하는 음악제와 학술세미나가 27일 각각 열린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스님)은 문화관광부의 후원으로 27일 오후 3시 국립중앙박물관 강당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세계정신을 탐험한 위대한 한국인!'을 주제로 △8세기 신라불교와 혜초(정병삼·숙명여대) △혜초의 구법여정과 왕오천축국전의 가치(김상영·중앙승가대) △입당구법승과 입축구법승(여성구·국사편찬위) 등이 발표된다. 이와함께 〈왕오천축국전〉 원문의 영인본과 활자본, 번역문, 연구문헌 목록 등을 수록한 자료집도 발간한다.

대한불교 진각종(통리원장 성초)과 본사가 공동주최하는 국악교성곡 '혜초'(장지현 시, 김희경 곡) 음악제가 27일 오후 7시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열린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중앙연구원

## 불교사상 가치-현대적 재해석 연구
## 경전을 중국어·영어로 데이터뱅크화

'99 전자불전회의가 열린 곳으로 국내 불교계에 처음 알려진 중앙연구소. 이 곳에서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중앙연구원(Academia Sinica)'을 방문하면 대만의 인문학과 과학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 중앙연구원에서 인문학분야 데이터베이스를 열람할 때 당연히 백미는 불교학이다.

중국에서는 한나라 시대에 불교가 도입된 이래 거의 2천년 동안 성장·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동안 중국불교는 중국의 철학, 종교, 음운론, 문학, 천문학, 음악, 예술, 건축, 사회관습 등 모든 분야에 깊은 영향을 주어왔다. 또한 중국불교는 중국문화의 여러 부분과 폭넓은 교류를 통해 각 분야별 연구에 이점을 제공하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현대 불교학 연구는 서구와 일본의 학자들이 1백여년이상 독점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 본토에서도 불교학 연구분야에 괄목할 만한 공헌을 하고 있다. 대만에서도 상당수의 불교학자들이 불교와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고 있어 많은 공헌을 하지만 아직 학자들 상호간에 협조와 제휴가 부족한 실정이다. 중앙연구원(Academia Sinica)은 이런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립됐다.

불교학을 연구하는 학자들간의 협조와 제휴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불교학의 통합적, 학제적 연구 풍토를 장려함은 물론, 불교학자들에게 효과적이고 국제적인 불교 학술 정보의 교환을 위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불교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과 불교학자들을 서로 연결 시켜주는데 있는 것. 대학 안팎에서 불교사상의 가치, 역사적 발전, 특질, 현대적 재해석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연구를 장려하고 있다.

중앙연구원의 주요 연구분야로서 학문적 부문은 철학, 역사, 문학, 예술이 있고, 데이터 수집분야로서는 ON-LINE상에서 중국어와 영어로 데이터 뱅크화 되어있는 불교경전의 목록을 작업화 하여 전세계의 불교를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접근,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진행중에 있는 중앙연구원의 주요 활동으로서 연구 프로젝트 부분으로는 △구체적인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를 국립과학위원회 및 교육부, 사학재단 등에 적용 △정부나 기업 또는 승가로부터 수탁받은 프로젝트의 조사연구 활동 등이 있다.

그리고 국제 회의 개최 부분으로는 불교와 관련있는 사회이슈를 가지고 국제적인 규모의 불교학술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출판 부문으로는 진행중에 있는 국제회의 내용이나 불교학 연구에 대한 결과물을 인쇄 매체로 출판하는 것이다.

중앙연구원의 연구원은 불교학에 관심있는 대학의 교수진들이 시간제로 근무하는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교의 학술적 연구 발전에 목적을 둔 중앙연구원은 철학, 역사, 중국문학과 인류학, 예술사 같은 학문분야에서 현재 연구중인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http://www.sinica.edu.tw/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 학술단신

### 불전국역硏 수강생 모집

중앙승가대 부설 불전국역연구원(원장 혜남)은 역경에 뜻을 두고 있거나 불교사상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원전 해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역 및 산스크리트어 불전연구' 수강생을 모집한다.

개설강좌는 △화엄학 특강 〈화엄경현담〉 △유식학 연구 〈성유식론〉 △〈능엄경〉 연구 △산스크리트어 문법기초 등이다. 강의는 3월부터 매주 월~목요일이며 2년과정이다. 접수마감은 24일까지. (02)929-9991

### '한국사연구휘보' 103호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이원순)는 〈한국사연구휘보〉 제103호를 펴냈다.

△학회·연구소편 △저자편 △논문편 △사료편 △해외편 등 98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국내·외 학자들이 발표한 한국사 관련 학술자료들이 수록돼 있다. (02)503-9544

## 러시아 종교협의체 생긴다

### 불교·정교회·유대교·이슬람교 참여

러시아에서 정교회,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 4개 종교협의체가 구성될 전망이다. '러시아 종교위원회'(가칭)란 이름으로 구성될 이 종교협의체는 앞으로 러시아 정·재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러시아 불교 포교의 약진이 기대된다.

정교회 모스크바 본부는 20일 성명을 통해 "새로운 협의체가 구소련시대부터 뿌리내린 러시아 주요 종교간의 대화와 협력문제를 논의하고, 또 세계 종교단체들과 협의하면서 국제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4개 종교는 지난해 말부터 지도자간 모임을 갖고 협의체 구성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4개 종교 지도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협의체를 정식으로 발족, 11월 구소련 붕괴 이후 최초의 대규모 종교간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종교협의체에 포함되지 못한 개신교·가톨릭계는 "협의체구성이 정교회와 갈등관계에 있는 여타 개신교와 가톨릭을 배제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포석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종욱 기자

일타 큰스님의 신간

불자의 기본 예절

바른 수행을 위한 불자 예절의 길잡이 !

바른 수행의 밑거름이 되는 불교집안의 예절.
불가(佛家)의 독특한 예절에 담긴
깊은 상징성과 깨달음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불교예절의 근본이 되는 마음가짐과 말씨,
걸음걸이와 앉음새, 합장법, 절하는 법,
법당에서의 예법, 법문 듣는 법,
세수·목욕·입측법 등 절집안의 생활예절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곁들여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Ⅰ. 불자의 마음가짐과 언행 Ⅱ. 합장법과 예배법
Ⅲ. 사찰에서의 예절 Ⅳ. 법문 듣는 법
Ⅴ. 절집안의 생활예절

4×6 판 / 3,500원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 시작도 끝도 없는 길 —

"죽음 뒤의 세상, 인간은 과연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해답을 일러주고자, 일타스님 자신과 가족·제자·신도들이 체험했던 윤회와 인연이야기를 53가지로 가려 뽑아 책으로 엮었다.
이 책을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신국판 / 5,000원

생활속의 기도법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4×6 판 / 3,500원

일타 큰스님의 알기쉬운 불교책

· 부드러운 말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 신국판 / 값 5,000원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쉽고 가깝게 전하시는 큰스님의 법어집.

· 기도(祈禱) — 신국판 / 값 5,000원
일타큰스님 주변의 기도성취 체험담 모음집.

· 시작하는 마음 — 신국판 / 값 5,000원
보조국사 《초심 初心》의 해설집.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 신국판 / 값 5,000원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강설집.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 신국판 / 값 5,000원
《자경문 自警文》을 알기 쉽게 푼 해설집.

· 범망경보살계 1 - 5 — 신국판 / 각권 6,000원
큰스님의 보살계 법문.

· 법공양문 — 신국판 / 값 5,000원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 감로법문 — (5개 1세트) / 값 12,000원
일타큰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범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